검사의 길 접고 의사로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김지현씨

"시아버지 인술 진료 철학에 끌렸어요"

"사람을 대한다는 점에서는 검사나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명을 다루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검사를 포기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소망하는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의 길을 포기한 채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가 있다.

올해 초 전남대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김지현(여·29)씨.

그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 대학원 동료들도 사연을 처음 접한 뒤 "왜"라고 묻는다. 그 어렵다는 사시, 보장된 앞길을 버리고 또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를 하다 법조인이 된 경우는 일부 있었지만 법조인이 의사를 택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그 어렵다는 4년제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야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10년 가까이 공부를 더해야 한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사서 고생'이 분명하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의 자기과시나 변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김지현씨는 "학창 시절 사시 준비하는 동안에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한편으론 의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면서 "결국 사법연수원 연수과정 중 갈등을 많이 했고, 연수원 수료 후 미련없이 법조인에 대한 꿈을 버렸다"고 말했다.

김씨가 법조인에서 의사로 진로를 바꾼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시아버지이다. 평소 시아버지인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박인수 이사장의 환자에 대한 사랑과 진료 철학 등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연수원 시절 가장 재미있었던 강의는 의료법이었다고 한다. 의료법 강의를 들으며 생명윤리, 환자 및 의료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보호 등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다.

그의 돌연한 선택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지식인은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사가 되더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는 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의 진로 변경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이는 역시 남편 박형준(36)씨다.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기획실장인 남편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관심사인 신경분야 특히 노화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찾아주는 등 다양한 외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지현씨는 "의사대 인간이 아닌 사람대 사람으로서 인술을 펼치는 의사, 이익을 쫓기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며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계종 새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으로 자승(慈乘·55·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사진)스님이 선출됐다.

자승스님은 22일 유권자 320명 중 3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실시된 제33대 신임 총무원장 선거에서 290표를 얻어 91.4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임기 4년의 신임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사회의 국회 격인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인 화엄회를 이끌고 있는 자승스님은 경쟁 종책모임인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등의 공조 아래 종책 모임 단일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 일찌감치 당선이 확실시돼왔다.

2007년 신정아씨 사건 등을 통해 첨예한 갈등을 노출해왔던 조계종의 종책 모임들이 뜻을 모아 50대의 젊은 총무원장을 탄생시킴에 따라 조계종 행정에 새 바람과 세대교체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자승스님은 1954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스님(77·현 총무원장)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제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2003년 열반)의 상좌를 지냈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으로 종단 일을 시작했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0대, 12대, 13대, 14대)을 거쳐 2006년 14대 전반기 중앙종회에서는 의장을 지냈다.

1997년부터 5년간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는 은사인 정대스님(2003년 열반)이 만든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아 불교단체와 불교학자,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대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연합뉴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민 참여 유도"

오재일 광주지방경찰청 발전위원장

"경찰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치안정책 자문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시민과 경찰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만난 광주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오재일(57·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를 '소통'에 주력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오 위원장은 "이 지역 내 경찰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교류를 통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협의체로써 역할을 다하겠다"며 "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오물 투기 등 생활사범은 일본의 44배가 넘는 등 기초질서가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민의 도움 없인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찰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경찰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계 지향 전남교육 새롭게 발전할 것"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퇴임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8년의 민선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내빈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교육감 퇴임식을 했다.〈사진〉

김 교육감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교육은 꾸준히 변화하고 진화해왔으며 척박한 땅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키는데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 노력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의 꽃을 피웠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열악한 여건에도 교원들의 수업 열의, 낮은 자립도에도 전남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며 "지역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노력이 있는 한 전남교육은 날로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1958년 해남 옥천초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김 교육감은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친 후 2001년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실력 전남 구현'에 매진해 '떠나는 농어촌'에서 '찾아오는 농어촌'의 교육 현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피겨퀸' 김연아 다이어리 나온다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의 이름을 건 다이어리가 출시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의 자회사 ㈜에브리쇼는 "김연아의 다양한 사진과 삽화가 포함된 다이어리 'Yuna's Diary(꿈을 꾸다)'를 제작했다"라며 "11월 초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260여페이지에 달하는 다이어리에는 아이스쇼를 비롯해 훈련 모습과 어린 시절 사진 등이 실렸고, 김연아가 직접 쓴 손글씨 스티커와 팬들이 그린 캐릭터 스티커 등이 포함됐다. 가격은 1만9천800원. /연합뉴스

이석형 함평군수 안중근평화재단 위원에

이석형 함평군수가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 지도위원으로 위촉됐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가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의 지도위원 위촉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0일 지도위원에 위촉됐다.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는 애국·애족·평화로 상징되는 안중근 의사의 시대정신과 청년정신을 실천하고 하얼빈 의거의 숭고한 참뜻을 기려 투철한 국가관을 지닌 청년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 창립됐다. /연합뉴스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웠다"

'100분 토론' 하차 손석희 교수

"그동안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롭겠다고 한 처음의 약속을 크게 어긴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이후 MBC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한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22일 오후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마지막 인사의 글을 올렸다.

손 교수는 다음달 1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100분 토론'에서 하차하며 26일 방송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이끌어간다.

'시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손 교수는 "이 글은 마지막 인사차 올리는 글입니다. 이미 저의 퇴진 문제가 공론화된 마당에 모두에게 부담만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혹 제가 '100분 토론'에 남게 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하차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저의 퇴진 문제가 프로그램의 새로운 출발과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의 퇴진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으며 행간의 의미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재향군인회, 57주년 기념식

광주·전남재향군인회(회장 성해석)는 2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강당에서 '제5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빛고을 사랑운동 및 훈훈한 지역만들기 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치룬 이날 기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도지사 등 기관장과 회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명순씨 장남 양재영군 신흥수(평동주유소·백암주유소 대표)·서덕례씨 장녀 신희양=24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콜럼버스 2층(노 블레스홀)

▲정근채·임화주씨 차남 형준(인천세무서)군 김동현(전 전남일보 사진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승완·임종심(물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유병호(남순천의원 원장)·이순복씨 아들 재철(전공수련의)군 김용하(광주고 교장)·노명란씨 딸 미나(약사)양=24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양태승·박판임씨 장남 정일(전 광주일보 업무국 사원)군 심종순·이미례씨 오녀 승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2층(로즈마리홀)

▲박현희·김점숙씨 장남 주영군 이팔용·조부덕씨 차녀 선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웨딩의 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우상순씨 장남 지훈군 오태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 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옥·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홍보팀장)군 박래선·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용연·박순철씨 장남 상호군 최현주(광주시 환경녹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혜미양=11월1일(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피로연 23일(금) 오후 6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2층(아젤리아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5회 동창회(회장 이승우) 야유회=24일(토) 영광 백수해안도로(광주역에서 9시10분 출발) 011-643-5301.

▲광주보건대학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한국토지공사빌딩 11층(삼성생명) 016-611-2858.

▲재광 홍일고 총동문회(회장 서기조) 및 한마음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산수초등학교 대강당. 011-602-5218.

▲학다리중·고 총동문회(회장 양한모) 체육대회=25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우천시 체육관)

▲재광의신중학교 총동문 가족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 017-511-4040.

▲광주 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허선호) 및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모교운동장. 011-602-9019.

향우회

▲재광청산면 향우회(회장 김흥학)=24일(토) 오전 10시 금남로4가 청해식당. 062-226-2889.

▲재광신안비금 향우회(회장 박은산) 체육행사=24일(토) 오전 10시 서구국민체육센터체육관(풍암생활체육공원 내) 017-627-2602.

▲재광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27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임동 페르마. 062-525-5566.

▲재광곡성군 향우회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무등파크호텔 가는길 산내들. 018-620-0900.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목) 오후 6시 동구 대인동 화랑궁 회관. 062-224-1800.

종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 종친회(회장 정학균) 월례회=23일(금) 오후 6시30분 신대흥정식당. 061-284-0880.

▲창원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원 세향참례=24일(토) 오전 8시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출발.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net.or.kr/)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지꽂이 만들기' 체험학습=24일(토) 오전 10~12시, 한지를 이용해 편지꽂이를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를 동반한 초등 2~6학년 40명(20팀). 062-521-9041.

부음

▲이수덕씨 별세 박동진·동화·동만·동민·규숙·갑숙·인숙씨 모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서삼영씨 별세 미선·미현씨 부친상=발인 24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이계님씨 별세 김장수·삼원·정희씨 모친상=발인 24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양동탁씨 별세 진호·윤호·영진씨 부친상=발인 24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정장례씨 별세 김대중·광중·옥임·옥례·칠선·영례씨 모친상=발인 2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재진씨 별세 철주·철우(인천경찰청 경정)·명숙·은영씨 부친상=발인 23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